

우수상 수상작

연구에 대한 애착과 정성

- 대학원 진학의 시작

‘대학원’, 너무 힘들어 벌을 받으러 가는 곳이라고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정말 학습의지와 열정이 빠져있다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곳이다. 나 또한 학부생으로 처음 실험실에 들어와서 대학원생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그 무거운 분위기를 직접 체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실험이 흥미롭고 궁금한 경험으로 변해갔다. 방학에 나오는 한 두 달이 짧게 느껴지고, 연구실에서의 일이 즐거워져서 아쉬움이 남았다. 나의 간단한 실험 하나하나가 사수 선배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결과에 대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석사과정 기간 동안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생겼을 때, 지도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지나가는 말투로 언급한 “걱정이라는 꼬리에 몸통이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지도교수님의 조언처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대학원 생활을 시작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대학원을 진학했다.

- BK21 교육연구단 참여로 경험한 혜택과 어학능력 강화

내가 속한 연구실은 BK21 교육연구단 참여팀으로 인건비 혜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업 및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먼저 인건비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밥 굶을 일이 없으니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화상영어 수업을 통한 어학능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화상영어 수업이 종료되면 오픽 응시료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어학시험의 높은 응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매일 참여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선생님과의 수업이 틀에만 박혀있는 것이 아닌 친구와 대화하듯 다양한 주제로 이어져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 화상영어 수업으로 이어진 선생님과 인연이 논문 작성 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영어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이메일을 통한 소통은 문법 교정과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나중에는 영어로 논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 학회 : 학문적 호기심 자극

대학원 학위과정 중의 ‘樂’은 역시 학회라고 생각한다. 실험과 연구는 물론 흥미로운 일이지만, 가끔은 밖의 공기를 마시며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학회라면, 집을 싸는 것부터가 마치 다른 문화를 체험하러 가는 듯한 기대감을 준다. 내가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좋은 기회이면서도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를 듣고 훌륭한 화학자들의 강연을 경청하는 자리이다. 기초강연은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고, 생소한 분야의 연구 발표는 미지의 세계로의 탐방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학회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학문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큰 자극제가 되어 앞으로의 연구의지를 다지는 곳이기도 하다. 논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내 연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온다. 학회에서 내 논문에 대한 질문과 관심을 받을 때가 희열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때마다 ‘제발 나한테 질문해 줘!’, ‘내 연구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까?’ 라고 속으로 외치고는 한다. 연구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때, 나의 연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새로움을 제공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연구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다. ‘멋진 연구를 했구나.’ 하며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만든다.

- 논문 게재의 여정 : 실패와 애착으로 성장하다.

학부연구생 시절부터 하던 연구주제가 석사과정 중에 논문에 게재되었다. 그 연구주제는 내가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다고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이다. 처음에는 술술 풀리는 듯한 원활한 연구로 막힘이 없는 줄 알았다. 연구가 점점 길어질수록 실험의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고, 점점 막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연구의지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내 새끼를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히 했다. 실험의 성공과 실패로 감정의 기복이 있었지만, 연구의 막바지에서 욕심을 조금 버리고 어떻게든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실험결과가 좋지 않은 데이터들은 실험을 중단하고 좋은 결과를 보인 데이터들을 모아 논문을 작성했다. 교수님께서 아낌없는 조언으로 빠른 시일 내에 투고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주셨다. 처음 논문을 투고했을 때에는 조금 어벙벙하고 후련했다. 이제 내 손을 떠나 revision을 기다리면 되니까, revision이 왔을 때 정말 논문이 게재가 되는구나 하고도 믿기지 않았다. 완전히 게재가 된 후에도 두 달 정도는 안 믿어졌다. 내 이름을 검색하면 논문이 나오는 게 어색하고, 학부연구생 시절부터 하던 연구주제가 세상의 빛을 보고 있다니, 두 달이 지나니 점점 실감이 나고 실험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주제들이 세상의 빛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게 되고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는 애착이 생겼다.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정의 기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성장한 연구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실패와 어려움은 계속일 것이지만 애착과 꾸준함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독립적인 성향에서 협업의 즐거움으로

나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타고난 성향 중 하나로, 변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원 진학을 하기 전에는 혼자 실험하고 데이터 정리도 책상에서 혼자 하는 일이니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원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내가 논문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후 논문작업이 끝났을 때에도 풀어지지 않게 마음을 다잡으며 동료들의 연구에 협력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선후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특히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듣고 나누면서,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에게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 협업이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 대학원 생활의 전이상태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은 학부생이라면 실험이든 실험실 환경이든 불평불만보다 애착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석사과정 1,2학기에는 실험이 잘 안 되어서, 실험실 환경에 대한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불만을 품는다고 해서 실험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거나 실험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만 기분이 안 좋을 뿐이다. 나의 경우에는 애증이 한 방울 섞여있다가 내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지면서 애증이 애착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논문게재까지 이루어냈다. 연구를 하고 싶은 날보다 하기 싫은 날이 더 많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꾸준히 하면 그래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감사의 글'을 쓰다 보니 나의 대학원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힘든 일의 배로 좋은 일도 많았다. 화학에는 전이상태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 장벽이 있다. 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인생에서 전이상태를 갖는다. 이 전이상태를 넘어야 다음 반응이 일어난다.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촉매는 무엇인지 고민하며 열정으로 에너지를 높여 장벽을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도교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내가 학위과정 생활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끼쳤고 덕분에 나는 알찬 석사과정을 보냈다.